



## 미 증시, FOMC 경계심리에도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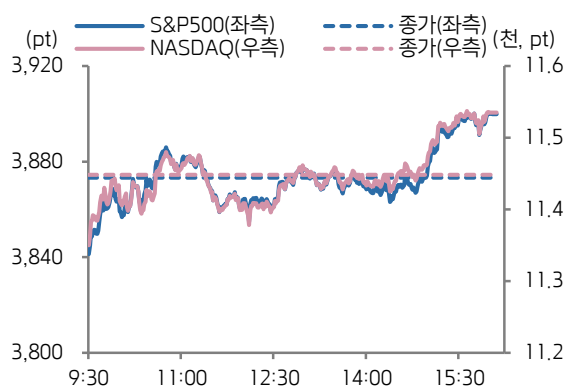
19 일(월) 미국 증시는 FOMC 경계심리 속 전일 페덱스발 경기침체 우려 지속, 국채금리 상승 부담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달러 인덱스 하락 전환 및 최근 연일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다우 +0.64%, S&P500 +0.69%, 나스닥 +0.76%).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5%대까지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 기록. 2년물 금리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 4%대에 도달할 가능성 반영하며 3.9%대까지 상승. 미국 9월 NAHB 주택가격지수는 46(예상치 47, 전월치 49)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 두달 연속 50을 하회하며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물가 피크아웃 전망을 시사했으나, 집계측은 “높은 건축비용 및 6%대를 돌파한 모기지 금리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전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 이에 중국 외교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 부각. 또한 지난달 중국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미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이후로 미 규제당국이 회계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미중 불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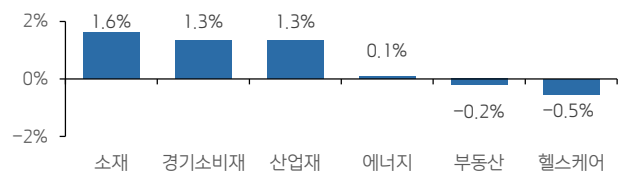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0.5%), 부동산(-0.2%)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소재(+1.6%), 경기소비재(+1.3%), 산업재(+1.3%)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애플(2.51%), 알파벳(0.26%), 아마존(0.91%), 메타(1.18%) 등 주요 시총 상위 기술주들은 금리 급등 부담에도 낙폭과대 인식 속 반등에 성공. 전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19 팬데믹 종식 발언으로 화이자(-1.28%), 모더나(-7.1%), 노바백스(-6.5%) 등 급락한 영향으로 바이오 섹터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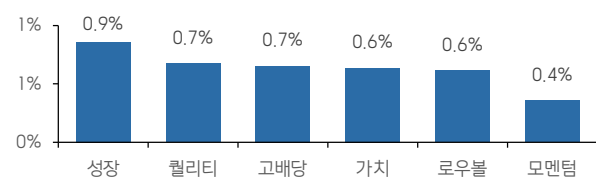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99.89	+0.69%	USD/KRW	1,393.82	+0.3%
NASDAQ	11,535.02	+0.76%	달러 지수	109.59	-0.16%
다우	31,019.68	+0.64%	EUR/USD	1.00	+0.03%
VIX	25.76	-2.05%	USD/CNH	7.00	+0%
러셀 2000	1,812.84	+0.81%	USD/JPY	143.23	+0.01%
필라. 반도체	2,577.94	+0.58%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3,075.10	+1.95%	국고채 3년	3.760	-1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3.785	+1.5bp
Eurostoxx50	3,499.49	-0.03%	미국 국채 2년	3.936	+6.9bp
MSCI 전세계 지수	599.53	+0.32%	미국 국채 10년	3.491	+4.1bp
MSCI DM 지수	2,569.29	-0.88%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944.12	-1.51%	WTI	85.73	+0.73%
MSCI 한국 ETF	54.31	-0.17%	금	1678.2	-0.3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89.4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등에서 기인한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 2.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결정 3. 전거래일 동반 급락했던 친환경 관련주들의 기술적매수세 유입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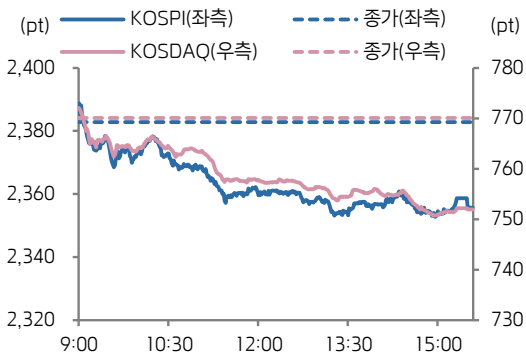
현재 9 월 FOMC 에서 75bp 인상(확률 81%)이 유력하지만 100bp 인상(확률 18%)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내년 초까지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4%대 중후반에 도달할 것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전망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전망으로 인해 미국 10 년물 금리는 장중 3.5%대를 상회하면서 11 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현재 3.494%). 더 나아가 10 년물과 2 년물간 장단기 금리차(-42bp)는 2000 년 이후 최대 폭으로 역전됨에 따라 미국 경기 역성장 혹은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양상.

물론 침체의 예측력이 높은 10 년물과 3 개월물간 금리차(+27bp)는 아직 역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식 침체를 주가에 반영하기에 이른 시점으로 보임. 다만,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주식시장에 출현했던 “주식 이외에 대안 자산이 없다(TINA=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역학이 시중금리 상승세로 인해 소멸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모습.

단순히 예적금 등 다른 자산과 비교 뿐만 아니라, 금리는 기업 밸류에이션 상 할인율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서도 실적 성장 자체가 뒷받침되면 할인율 부담을 상쇄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현재는 매크로 민감도가 높은 장세이고 또 금리 고점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3 분기 실적시즌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군(자동차, 기계, IT 등)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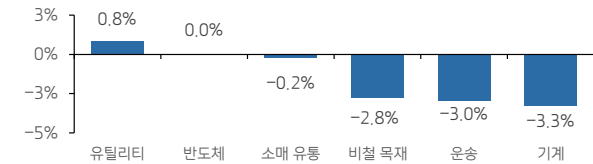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경계심리 및 페덱스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매크로 불안 속 2 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주들의 동반 급락으로 인해 약세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2.4%). 금일에는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속 미국 증시 반등,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금주 9월 FOMC 전후로 주가 변동성 자체는 높아질 전망이 코스피 후행 PBR 이 현재 0.91 배로 지난 7 월 4 일 장중 연저점(2,276pt)을 기록했던 당시의 밸류에이션과 동일한 만큼, 이 같은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이 증시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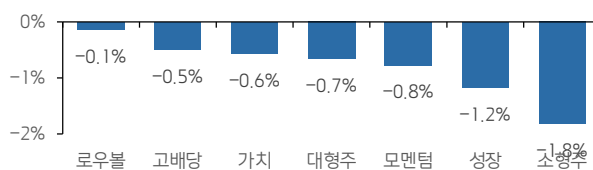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